

# 기후변화 피해 개도국 보상책 나올까

### 이집트서 기후변화 정상회의 개막 200개국 대표단 등 4만여명 참여 온실가스 감축 등 위기 해법 모색 기후기금 놓고 선진·개도국 논쟁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제 27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회의(COP27)가 6일(현지시간)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위치한 사툼 엘 셰이크에서 개막했다.

올해 총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며 약 200개국의 대표단과 환경·기후 관련 시민단체, 기업인, 언론인 등 4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낀 영국 총리를 비롯해 80여 개국 정상과 국가 수반급 인사도 참석해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 해법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댄다.

한국에서는 나경원 기후환경 대사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7~8일 열리는 COP2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올해 총회에서도 큰 줄기의 논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문제로 모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총회에서는 인위적인 기후 변화로 초래된 기상변화나 해수면 상승 등의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보상하는 문제인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정식 의제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선진국들은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COP16) 당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약 141조 원)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실제 공여 이행률은 80% 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약속 불이행을 질타하는 한편, 애초 약속한 액수도 충분하지 않다고 올해 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작년 글래스고 총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제기됐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반대했다.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처 이슈에 묶어서 논의하지는 않겠다고 한다.

개도국들은 또 기후 위기와 전쟁 등이 촉발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기후기금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식량 및 에너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 경고 등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 상황에서 각국

이 과연 이런 목소리를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위기 상황 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강화 약속도 공염불이 되어가는 분위기다.

COP27 주최국인 이집트는 그동안 내놓은 온실가스 저감, 기후기금 공여 약속의 이행을 이번 총회의 목표로 강조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작년 11월 영국 글래스고 총회(COP26)에서 주요국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세계 석탄 발전량은 지난 1년간 오히려 1% 늘었다는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추산은 온실가스 감축 약속과 이행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유럽에서는 원자력·수력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에서는 지난 7~8월 기록적인 가뭄으로 수력 발전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석탄 소비를 각각 늘렸다고 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채택한 지구 온난화 억제 목표 1.5도를 지키기 위한 목표에 근접하지 못했다. 1.5도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면서 "인류가 최악의 기후 위기 영향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미안파 타자웅다잉 열기구 축제 6일(현지시간) 미안파 만달레이의 핀우르원 마을에서 '타자웅다잉 열기구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이 북극곰 모양의 열기구를 띄우고 있다. '빛의 축제'로도 알려진 이 축제는 미안파 8월 보름에 열리는 미안파 최대 규모 행사. /연합뉴스

## 프란치스코 교황 "여성 인권 투쟁 계속돼야"

### 이란 여성들 반정부 시위 지지 발언

프란치스코 교황이 6일(현지시간) 이란 여성들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 "우리는 여성 인권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레인에서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란 여성들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질문에 "여성의 인권 투쟁은 '지속되고 있는 투쟁'이라며 '여성'은 선물이다. 신은 남성을 창조한 다음 그의 랩독(lapdog·소행방려견 또는 타인에게 통제당하는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남녀를 동등하게 창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에게 충분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교황청 주교부 위원직에 임성한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를 언급하며 "바티칸에서 여성에게 직책을 맡길 때마다 상황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어떻게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티칸 재정 감독 부문에 여성 5명을 임명한 것은) 바티칸 입장에서 '개혁'이라고 덧붙혔다.

다만 여성도 남성처럼 사제가 되도록 하는 등 그 이상을 요구하는 운동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상대로 이민자들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사이프러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자국으로 몰려든 이민자를 모두 직접 책임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며 "EU 각국은 어느 정도의 이민자를 수용할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美복권 당첨금 2조6809억원 사상최고액

### 40회 연속 1등 당첨자 안 나와

전 세계 복권 역사상 최고액 당첨금으로 불려난 미국 '파워볼'이 지난 5일 밤(현지시간) 잭팟 행운의 주인공을 만나지 못하면서 1등 당첨금이 19억 달러(2조6809억 원)로 더 늘어났다.

파워볼 운영업체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현재 1등 당첨금이 19억 달러로 증가했다며 오는 7일 밤 또 추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첨금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난 8월 3일부터 전날까지 40회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까닭이다. 파워볼은 매주 3회 추첨하며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당첨금이 이월돼 누적된다.

다만, 당첨금 19억 달러는 29년에 걸쳐 분할 지급받을 때 해당하는 금액이며, 일시불로 받으면 9억2900만 달러(1조3108억 원)가 된다.

앞서 파워볼 운영업체는 전날 밤 기네스북에 복권 사상 최고액 1등 당첨금으로 새로 기록된 16억 달러(2조2576억 원)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추첨을 했으나 당첨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았다고 CNN과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종전에 기네스북에 올랐던 세계 최고 1등 당첨금은 지난 2016년 1월 파워볼에서 나온 15억 8600만달러로, 당시 세 명의 복권이 당첨됐다.

파워볼 복권은 미국 50개 주 중 45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팔린다.

1등 당첨 확률은 약 2억9220만 분의 1이다. 1등에 당첨되면 '흰색 공'에 해당하는 숫자 1~69 중 5개와 '빨간색 파워볼' 숫자 1~26 중 1개 등 6개 숫자가 모두 맞아야 한다. /연합뉴스



빅토리아 호수에 탄자니아 여객기 추락...최소 19명 사망 탄자니아 동부 다르에스살람에서 이륙한 탄자니아 저가항공사 프리시전어어 소속 여객기가 6일(현지시간) 서북부 부코바 공항에 착륙하려다가 인근 빅토리아 호수에 추락했다. 사진은 수면 위로 드러난 사고기 일부와 구조대원들의 모습. /연합뉴스

## 미 중간선거 D-2 여론조사... 공화 50% vs 민주 48%

### 81% "경제가 투표 가장 큰 영향"

미국 중간선거를 이틀 앞두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유권자 7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현지시간) 발표한 결과, 중간선거에서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와 48%의 지지

율로 사실상 팽팽했다.

WP는 "역대 사례를 참조한다면 (여당인) 민주당이 확실하게 앞서야 승산이 있다"며 "2018년 중간선거의 경우 같은 시점 조사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을 7%포인트 앞섰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이 승리한 2010년과 2014년 중간선거에서는 여론조사에서보다 실제 투표에서 공화당이 더 큰 차로 앞섰다고 WP는 덧붙였다.

'적극적 투표 참여'에 있어서도 공화당 지지층

이 민주당 지지층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의 74%가 투표 의사를 밝힌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80%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76%가 투표 의사를 밝혔다.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81%의 응답자가 경제를 꼽았다. 인플레이션(71%), 민주주의 위협(73%) 등도 핵심 요인이었다. 낙태라는 답변은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수목장\*자연장 전문

## 수목장\*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